

새만금송전철탑 피해 보상금 놓고 갈등

협상단, 51억여원 중 농기계 구입 후 28억원 분배 약속 이장단, 농기계 소유·마을 보상금 제각각 '횡령' 주장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조성된 송전철탑 건립 피해보상금으로 받은 보상금을 놓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지역인 옥구읍 이장단은 2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송전철탑 협상단이 한전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사유화하고 있고 마을별로 분배한 보상금도 멋대로 책정했으며 그나마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

지다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장단에 따르면 옥구읍 주민들을 대표해 2013년에 구성된 새만금송전철탑 보상단은 한전 측과 보상금 등에 관한 부분을 협의해 지난 2016년 옥구읍 33개 마을이 새만금 송전선로 연결공사를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5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당시 협상단은 보상금 가운데 29억5천만원은 농기계 11대를

구매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28억원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마을에 분배해줄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상단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농기계를 사실상 개인적으로 나눠 가진 뒤 지난 3년간 자신의 것처럼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장단은 "원래는 시간당 이용료로 일정액을 받기로 했으나 협상단이 개인별로 보관해 쓰면서 자신의 이용료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받은 이용료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여개가 넘는 각 마을에 수천만원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그

돈이 누구를 통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덧붙였다. 이장단의 주장에 협상단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보상금 51억5천만원에서 한 푼도 횡령한 것도 없고 이미 수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지속하면 법적으로 대응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새만금 송전철탑은 지난 2008년 1700억원을 들여 한전이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km)에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에서 '모범여성기업인 공로패'를 수상했다.

신영자 군산시의원, 모범여성기업인 공로패 수상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여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에서 '모범여성기업인 공로패'를 수상했다. 신 의원은 1999년 7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멤버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 지원에 앞장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영자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 군산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군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군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

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제시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신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영자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쁨 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율 시장, "환경친화도시 재탄생" 강조

환경파괴적 요소 전환해 관광·산업용도 활용방안 강구 지시

정헌율 익산시장이 22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익산시가 그 간의 환경 관련 문제들을 극복하고 환경친화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문제 등 주요시책 추진 시 시민과 함께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그 동안 익산시가 환경과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문제의 극복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합라 장점마을의 (유)금강농산 부지를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환경파괴적 요소를 친환경시설로 전환하여 관광 및 산업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환경문제 등 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 공청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

다. 이밖에도 정헌율 시장은 "하절기에 운영되는 어린이 풀장은 사정상 멀리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운영기간도 너무 짧고 시설 확대 및 보강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태풍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다음 태풍이 또 다시 북상 중이라고 하니 시민안전과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교육 입소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차신태)가 22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향후 베트남으로 취업할 150명의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교육과정 입소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교육은 도전정신을 갖춘 해외지향형 청년인재를 발굴해 어학과 직무교육, 인성교육 등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2016년 30명의 교육생을 시작으로 2017년 74명, 2018년 157명의 글로벌 청년인재를 양성한 바 있다. 오는 입소한 교육생들은 8월 23일까지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 수료 후 베트남 현지 회사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교육생들에게 기계, 자동화시스템, 정밀측정, 산업설비, 전기 분야 등 산업기술에 대한 기초직무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입소식에 참석한 차신태 학장은 "우리 대학은 교육생들의 각 분야 기초직무능력과 현장 이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새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자연 생태 터널 설치 총 60m길이... 야간 LED조명으로 볼거리 선사

익산시는 23일부터 중앙체육공원에 관상용 호박과 꽃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생태 터널을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전북농업기술원과 연계해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장에 적용 가능한 덩굴식물 발굴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으며 8월 말까지 중앙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무더위 그늘 쉼터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된다. 생태터널은 총 60m길이를 총 3개 테마로 나눠 이야기와 볼거리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야간에는 LED조명을 설치해 음악분수대와 함께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터널 입구에 들어서면 동그란 모자 모양의 베레모, 손가락 모양의 이색 칼라 배 등 7종의 관상호박들이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호박터널을 만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터널에서는 4종의 신비한 아열대 작물과 3종의 덩굴성 화훼 등으로 조성돼 이색적인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꽃과 원예의 이색적인 터널 쉼터가 현대 도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올 여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대한한돈협회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업

자립도시 군산시(시장 감임준)가 대한한돈협회와 돼지에게 속하는 동물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양돈농가별 담당관의 농가 현장점검과 전화 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들어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 멧돼지의 농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멧돼지 기피제를 공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청년정책 발굴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군산시(시장 감임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2일 청년창업센터 운영위원회와 청년협의체 공동회의를 개최해 오는 9월 청년센터 개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와 청년협의체 공동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의 민관 거버넌스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군산시 청년협의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센터의 그간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센터 수탁기관인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청년(창업)센터 운영 준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촉장과 청년협의체 위촉장 수여 후에는 군산청년을 만나보자는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청년들은 시장과의 공감대와 시간이 "청년센터와 창업지원센터는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복합 센터인 만큼 각 주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영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감임준 군산시장은 "청년문제는 지금까지의 '청년실업'이라는 일자리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행정에서 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